

보성군, 공공시설사업 자체 설계 예산절감

토목직 공무원 15명 참여 마을안길·농로포장 등 직접 설계 180건 60억원 규모 사업 진행 군민 혈세 4억원 절감 효과

보성군이 공공시설사업을 자체 설계해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성군은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지원단 운영을 통해 예산 4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설계단을 꾸리고 2월 말 자체 설계를 완료했다.

설계 지원단은 시설직(토목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군민과의 대화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 공모제에서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군 설계 지원단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180건 60억원 규모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했다.

이장단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

업에 대해서는 보성군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사업을 확정하고, 3월 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설직(토목직)이 없는 노동면 등 8개 지역에는 본청에서 인력을 지원해 현지 조사부터 설계까지 직접 참여 사업 조기착수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설계지원단 운영으로 시설직 공무원들의 실무경험 증진은 물론 기술교류로 직무역량 향상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체 설계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



보성군 관계자들이 용배수로 공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방, 농번기 이전 사업 마무리로 군민 불편을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지방자치경영대전 농림부장관상 수상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도시 조성

구례군이 최근 개최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이 농축특산물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자체 상호비교 경쟁을 통해 우수경영 시책을 발굴·공유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해 개최하고 있다.

구례군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이번 경영대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산수령'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활용,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 개최, 구례자연드림파크 친환경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국내외의 판로 개척 등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촌경제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구례군의 친환경 농업도시로서 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구례군의 친환경 농업도시로서 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첫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개원

'하얀어린이집' 리모델링 마쳐

고흥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개원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전환·개원한 시설은 '하얀어린이집' (정원 91명)으로, 지난해 8월 사업 확정에 따라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매입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개원했다.<사진>

군은 이번 사례가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핵심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민선7기 중요시책인 영유아 보육 지원의 첫 출발이란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고흥군은 현재 20개소 어린이집에 831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국공립은 2개소 34명(4%)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하얀어린이집 개



원으로 국공립 이용률이 14.2%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보성군, 습지 교육·전시 주암호 생태관 7월 개관

보성군은 생태 습지 교육과 전시를 담당할 주암호 생태관을 오는 7월 개관한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국비 50억원 등 100억원을 투입해 복내면 주암호 생태습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태습지관을 완공하고 전시 공간 준비에 나섰다.

주암호 생태관은 습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관과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습지 만들기과 물고기 잡기 체험, 도형블록을 이용한 동식물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곡성군, 무상 지원사업

곡성군이 지역 초등학교에 과일 간식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곡성군은 지역 8개 초등학교 학생 중 돌봄교실 이용 244명 학생에게 지난 13일부터 과일 간식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는 학생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신선탄 제철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컵이나 파우치에 담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살랑살랑 곡성으로 꽃바람 맞으러 가볼까

섬진강 일원서 '곡성 한바퀴-꽃바람 봄여행' 4차례 진행

"살랑살랑 곡성으로 꽃바람 맞으러 가볼까?"

곡성군은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인기 계절 여행 상품인 '곡성 한바퀴-꽃바람 봄여행'을 4차례 진행한다.

'곡성 한바퀴'는 2017년 곡성군과 주민여행사 '협동조합 섬진강두꺼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개발한 계절 여행 상품이다.

이번 꽃바람 봄여행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된 '섬진강기차마을'을 시작으로 '두계 외갓집 체험마을' 로 이어

지는 코스로 짜였다. 토란병 만들기, 섬진강변 자전거 라이딩, 시골밥상 체험<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비용은 성인 3만2000원, 소인 1만6000원 등으로 회당 선착순 30명씩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예약 등 문의의 사항은 협동조합 섬진강 두꺼비(061-363-5650)로 연락하거나, 누리집(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10194/items/3014540)을 방문하면 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군, 서울 박람회 도시민 귀향귀촌 유치 상담창구 운영

고흥군이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9 성공귀농 행복귀어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향귀촌 유치를 위한 이동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농사꾼으로 살자' 말고 농업 경영인으로 살자'는 주제로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지자체 홍보관, 전국 막걸

리 체험, 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으며, 귀농·귀어·귀촌·귀산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고흥군 귀향귀촌 상담부스는 고흥귀향귀촌협의회(회장 유제영) 회원과 귀농 선동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면

서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성공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재경고흥군향우회(회장 이호)는 고흥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고흥으로의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향우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5일 군과 귀향귀촌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